

정의로운 한판승

이 이야기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큰 형이 나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이다. 형은 처음 6개월은 그 회사의 비정규직원이었고 그 이후엔 정규직원이 되었는데, 사건은 형이 이곳에 정식 채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그날 형은 이사에게 보고할 문서를 손보고 퇴근 채비를 했다. 퇴근 후엔 한동안 못 다닌 유도 학원에 갈 것이었다. 그때 최 팀장이 형의 뒤통수에 비꼬는 말을 툭 던졌다.

“김 대리. 정규직 되고 나니 간딩이가 부었어. 술을 통 안 사네.”

깎보는 말투다. 형보다 한 살 어린 팀장. 하지만 직속 상관이다. 비정규직 때는 어쩔 수 없이 고분고분하게 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형은 대꾸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다. 팀장이 다가와서는 형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이봐. 술 한잔 사라고. 월급 받았잖아. 일 못하면 술값이라도 해야지.”

순간 형의 눈빛은 이글거리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이러지는 맙시다.”

팀장은 여전히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형의 손목을 쥐었다. 형은 팀장을 노려보았다.

“제가 팀장님 비위 맞추느라 얼마를 쓴 줄 압니까? 자그마치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하고 6,900원이에요. 제가 회사에 돈 벌러 왔지, 팀장님 술 시중하러 왔습니까?” 형의 음성은 떨렸다. 최 팀장은 콧방귀를 끼며 빈정댔다.

“이제 막 정규직 달았다고 보이는 게 없지?”

최 팀장은 한 손을 올리며 때리는 시늉을 하려다 형의 분노에 찬 눈과 마주치자 손을 내렸다.

“저 오늘부터 술 안 마십니다, 팀장님과는요. 회사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팀장님과는 절대, 절대로 안 마십니다!”

형은 문을 ‘뿡’ 소리가 나게 닫고 나갔다. 그걸로는 분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다. 처음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빠르게 흘러갔다.

처음엔 최 팀장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처음 입사했을 때 직무를 잘 몰랐던 형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으며, 다른 부서 직원들이나 같은 설비팀 직원 까지도 일 못하면 그만두는 게 회사에 좋다며 면전에 대고 편잔을 줬다.

황 반장이 제일 심했다. 황 반장은 형보다 아랫사람이지만, 형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에게 반말을 했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때 최 팀장이 형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때는 좋은 상사였다.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형이 첫 달 월급 받은 직후였다. 최 팀장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형에게 다가왔다.

“김 대리. 벌써 회사 들어온 지 한 달 됐네. 이제 일 할만 하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버티긴 버티네요.”

형은 가벼운 한숨을 쉬면서도 최대한 밝게 웃어 보였다. 그때, 최 팀장이 가까이 다가와 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능글맞게 말했다.

“오늘 술 한잔 어때?”

“네. 좋습니다.”

형은 술자리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최 팀장은 형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일찍이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 형은 최 팀장이 가정적인 남자일 거라고 넘겨짚었다. 하지만 최 팀장이 형을 데려간 곳은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이었다. 술값 계산도 형에게 떠넘겼다.

그날 형이 쓴 술값은 60만 5천 원. 형은 그날까지 그만한 돈을 한 번에 써 본 적이 없었다. 돈을 벌 때에도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옷도 인터넷에서 5천 원이 넘으면 사기를 주저하는 형이다. 술자리는 가시방석이었다. 돈 나갈 생각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다. 테이블 위로 양주가 나오고 비싼 안주들이 차례로 들어올 때 형은 오만가지 생각을 했다.

‘저 양주 한 병이면 한 달 반찬 값은 될 텐데.’

‘저 안 주면 한 달 월세를 낼 텐데.’

‘이 돈으로 어머니 옷을 사드리면 효자라고 칭찬이라도 받을 텐데.’

형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싶었다. 술에 취한 최 팀장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을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팀장은 강제로 형을 불렀다. 형이 술자리를 거절하면, 최 팀장은 다음날 나쁜 상사가 된지 보여줬다. 형은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 술을 샀다. 통장 잔고가 허락하는 한도까지만 말이다. 형이 최 팀장에게 술을 일주일에 두 번을 사주면, 다음 두 번은 거절해야 했다. 그런 식으로 형은 6개월을 버텼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형은 최 팀장과의 술자리를 끊었다.

최 팀장과 대판 싸운 후, 팀장도 더이상은 술 시중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괴롭힘이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형의 탓으로 돌렸다. 팀장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한참 직급이 낮은 조장도 형을 무시했는데, 어떤 일을 지시하면 무례하게 입술을 삐죽이며,

“그렇게 일을 잘 알면, 김 대리님이 직접 하시죠.”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일쑤였다. 다른 사람 같았다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부하 직원과 주먹다짐을 하거나 못해도 멱살잡이는 몇 번 했을 것이다.

형은 달랐다. 형은 화를 내는 대신 사색에 잠겼다. 내가 물었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냐고. 형이 말했다. 다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회사일 때문에 직장인끼리 감정 상황 필요 없다고 말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형은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그 무렵 형은 무언가에 골몰했다. 식사 중에도, 10평짜리 조그만 숙소로 돌아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도 형은 어떤 생각에 매달렸다. 형의 손에는 신축 공장 전기 도면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 형은 신축공장을 총괄하는 이사를 만나러 갔다. 이사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신보다 20년이나 어린 신입 직원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이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다. 형의 이야기를 들은 이사의 얼굴에는 그윽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형을 칭찬했다.

얼마 뒤, 조회 시간. 이사가 공장 직원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형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은 일제히 형을 바라보았다.

“모두 김 대리에게 손뼉 칩시다. 김 대리 아이디어로 매달 전기료를 300만원 이상 절감하였어요. 김 대리처럼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세요.”

사람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다. 그 와중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는 사람, 조용히 박수를 치는 사람, 부러움과 시기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 황 반장은 놀라는 편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기름밥을 먹었지만, 평생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적이 없었고, 자신과 다른 형을 대견하게 생각했다. 그날 조회가 끝나고 황 반장이 형을 불렀다. 그는 잠시 뜬눈을 뜨고 한 손으로는 머리를 긁적이며 반대편 손을 내밀었다.

“김 대리. 내가 그동안 막말해서 속상했지? 진짜 진짜 미안하데이.”

황 반장의 손은 굳은살이 많아 거칠었다. 오랜 시간과 경험이 화석처럼 단단히 굳은 훈장이었다. 형은 그 손을 덥석 붙잡았다. 황 반장의 따뜻한 온기가 형의 마음에도 전해지며 그동안 맺혔던 마음의 응어리가 스르르 풀렸다.

“이건 김 대리를 믿어서 하는 이야긴데, 우리 최 팀장 있잖아. 그 친구 행동이 요즘 수상해.”

황 반장은 잠시 후, 형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최 팀장이 최근 공장의 오래된 기계를 폐기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계는 10년은 더 사용이 가능하며, 최 팀장이 그 제품을 경쟁사에 중고로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새 기계를 사려면 구매 비용이 3억이나 드는데, 단돈 3000만 원에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황 반장이 형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형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그날 점심시간 때, 형은 공장 담당 이사를 찾아갔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최 팀장이 형이 일하는 곳으로 씩씩대며 걸어와서는 다짜고짜 형의 멱살을 잡았다.

“네가 지금 내 뒤통수를 쳐? 이 새끼가 오냐오냐하니까 보이는 게 없나 보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요? 기계가 아직 멀쩡해서 이사님께 계속 쓰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뭐가 문제인데요?”

멱살을 잡고 있는 두 손을 풀어내자 최 팀장이 형의 뺨을 내려쳤다. 형은 얼얼한 뺨을 한 손으로 감쌌다. 그의 왼손이 연달아 날아왔다. 이번엔 형이 가만히 맞고 있지만은 않았다. 형은 날아오는 손을 양손으로 감싼 뒤 뒤돌아서 한쪽 발로 그의 다리를 걸었다. 그의 몸이 중심을 잃었다. 곧바로 형은 등으로 그의 몸

을 들어 올려 반대편으로 집어던졌다. 형의 기술에는 조금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팀장의 몸뚱이는 잠시 비행한 뒤 바닥에 곤두박질쳤다.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 그의 가녀린 등짝과 엉덩이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그는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형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팀장을 부축해주었다. 그는 형을 의지해 일어나다가 갑자기 오른발로 형을 걷어찼다. 형은 날아오는 그의 발을 피하지 않았다. 손으로 팀장의 발을 붙잡고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 상태로 형은 팀장을 몇 미터 밀고 간 뒤, 나무 격벽으로 내동댕이쳤다. 나무 격벽이 쿵 하고 무너졌다. 그 너머를 사무실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다. 팀장은 눈만 깜빡거리고 무너진 나무 벽 위에 떡 반죽처럼 퍼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사건은 공장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 그 이후로 회사에서 형을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